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국가없는사회주의: 아나키즘

미하일바쿠닌

미하일바쿠닌
국가없는사회주의: 아나키즘

G.P. 막시모프, 『바쿠닌의정치철학』 (1953 년, 뉴욕, The Free Press) 에서부터.

kr.theanarchistlibrary.org

차례

프랑스대혁명에의해선포된대원리의효과	3
사회주의는정의正義다	3
사회주의의기본원리	4
국가사회주의는거부된다	4
상속법의철폐	5
사회주의선언	6
정치권력의자리에생산담당자의조직을	6
인민의이상	7
자유사회의강령	7
혁명기간에합당한전술	8
법령뿐인혁명은실패하고야만다	8
폐지된국가의뒤를이을자유조직	9
자유는평등과함께가야한다	9
권위주의적혁명과자주적혁명의차이점	10
공산주의자와아나키스트의방법	10

라자신들의자연스런경향과실질적해관계에따라조직하거나자생적으로연합으로결합될수있도록노력한다.

혁명적사회주의자는학식있는박사나자칭인류의스승이라는자들의심오한생각보다는인민대중의본능적열정과실질적욕구속에훨씬더많은실천적이성과지성이존재한다고믿는다. 그자들은인류를행복하게만들겠다는무수한시도가이미하나같이실패로돌아간비참한경험이있음에도불구하고, 똑같은짓을되풀이하려한다. 그러나, 혁명적사회주의자들은반대로인류는오랫동안, 너무오랜시간동안스스로를통치하도록허용해왔고, 그불행의근원은이것이나정부의다른형태에있는것이아니라정부의원칙과존재, 그본질에있다고믿는다.

독일인들이발전시켰고미국과영국의사회주의자들에의해부분적으로수용된과학적공산주의와라틴국가의프로레타리아트가광범위하게발전시켜궁극적인결론에까지이르렀으며, 오늘날까지도받아들여지고있는프루동주의사이에현재존재하는것은역사적으로도확인된바있는견해상의이러한차이다. 혁명적사회주의는찬란하고도실천적인모습을파리코뮌에서최초로드러낸바있다.

범독일인들의깃발에는다음과같이적혀있다. 어떤대가를치르더라도국가를유지하고강화시켜라. 반대로우리의깃발, 사회혁명가의깃발에는핏빛찬연한글씨로이처럼적혀있다. 모든국가의파괴, 부르주아문명의일소, 억누를수없는백성과해방된모든인류의조직인자유결사를통해아래로부터자생적으로건설되는자유조직, 그리고보편적신인간세계의창조.

이러한새로운조직을창조하기전에, 혹은오히려인민들이새로운조직을창조하도록돕기에앞서, 반드시승리를쟁취해야한다. 원하는세상을창조하기위해서는국가를타도해야만한다...

로, 그리고코윈의자유로운연합으로확대될생산자협회라는자유조직에 의해확립되어야한다고확신한다.

권위주의적혁명과자주적혁명의차이점

사회주의적혹은혁명적집산주의자가권위주의적공산주의자, 국가의절대적주도권에대한지지자와주요하게갈리는점은다음과같다. 둘의 목표는동일하다. 두세력은만인에게평등한경제조건하에서, 즉생산도구의집단적소유하에서오로지집단노동을기반으로한새로운사회질서를창조하길원한다.

다만공산주의자들은부르주아급진세력의도움을받아노동계급, 주로도시프롤레타리아트의정치권력을발전시키고조직화하는것을통해 쟁취할수있다고생각한다. 반면, 일체의모호한동맹을적대시하는혁명적사회주의자들은대조적으로이러한공동의목표는정치를통해서가아니라, 비록상류계급으로부터어났지만자기의지에따라과거와단절하고공공연히프롤레타리아트편에가담하여그강령을수용한사람들을포함하여, 도시와촌락노동대중의사회(따라서반정치적인) 조직과권력을통해서쟁취할수있다고믿고있다.

공산주의자와아나키스트의방법

이로부터두가지서로다른방법이도출된다. 공산주의자는국가의정치권력을빼앗기위해서는노동자의물리력을조직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혁명적사회주의자는국가를파괴하려는, 더정확히표현하자면국가를청산해버리려는의도로조직화한다. 공산주의자는권위의원리와그에따른실천을옹호하는반면, 혁명적사회주의자는자유로운신념만을간직한다. 이들은똑같이과학을옹호하는이들인데, 과학은미신을파괴하고신앙을대체하는것이다. 하지만공산주의자는과학을인민에게강요하고싶어한다. 반면혁명적집산주의자는인민들에게과학과지식을확산시켜서그결과로인간사회의여러그룹들이자신감을갖게되어, 소수'잘난'사람이무지몽매한대중에게강요하기위하여미리준비된계획이아니

프랑스대혁명에의해선포된대원리의효과

프랑스혁명이대중에게그복음, 즉신비적이지않고합리적이며, 내세가아니라현세의, 하늘의복음이라기보다는인간의복음, 다시말해인권 의복음을현사할당시부터, 혁명이모든사람은평등하며모든사람에게는 자유와평등이주어져있다고선언한이래로, 그리스도교라는아편에마비 되면서부터빠져들었던굴종상태의잠으로부터서서히깨어나고있는전 유럽국가들의대중들그리고모든문명세계의대중들은그들역시도평등, 자유그리고인간의권리를가지고있는지에대해서자문하기시작했다.

이러한질문이제기되자마자본능만이아니라탄복하리만치건강한의식에의해인도되는인민들은자신들의실질적인해방혹은인간화의첫번째조건이무엇보다도경제상황의근본적변혁에있다는것을깨달았다. 일용할빵의문제는당연하게도그들에게제일가는문제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지적한것처럼사람은사고하고, 자유로움을느끼며, 사람노릇하기위해서는일상생활의물질적걱정으로부터자유로워져야하기때문이다. 그점에관해서부르주아들은그문제를아주잘알고있으면서도인민의유물론적요구에반대한다고그토록소란스럽게소리질러대며관념론에따른금욕을인민에게설교하고있는데, 왜냐하면말만늘어놓았지실천할수는없기때문이다.

인민들에게부각되는두번째문제, 즉노동후의여가는인간생존의필수적조건이다. 그러나현사회의급진적인변화외에는결코빵과여가를쟁취할수없는데, 이는프랑스대혁명이그자체의원리가가지는함축에의해사회주의를탄생시킨이유를설명해준다.

사회주의는정의正義다

...사회주의는정의다. 우리가정의에관해언급할때이는나폴레옹법전이나라로마법에담겨있는정의를말하는것이아니다. 이것들은완력으로 밀어붙이는폭력, 그리스도교교회나이교도교회에서행하는기도에의해 신성시되는폭력이라는엄청난범죄에기초하고있으며, 절대원리처럼떠받들어져그로부터논리적추론과정을통해모든법률이유추되는그런정의이다. 우리는그런정의가아니라오로지인간양심에기초한정의, 모든사람의의식심지어어린이의의식에서조차발견되는그런정의를말하는 것으로, 이를'공정 equity'이라는한단어로표현할수있을것이다.

무력에 의한 정복과 종교적 영향력 때문에 정치나 법리, 경제분야에 아직 승리하지 못한 이 보편적 정의는 새로운 세계의 초석이 되어야만 한다. 그것 없이는 자유도, 공화국도, 번영도 평화도 있을 수 없다. 그 후에 그것은 우리가 평화 정착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의지를 장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는 끔찍하게 학대받은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적 자유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해방을 요구하도록 촉구한다.

사회주의의 기본원리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러저러한 사회주의 체계를 제안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의 위대한 원칙에 대한 새로운 선언이다.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성을 발전시킬 물질적, 도덕적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원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이 삶 속에서 자신의 다양한 능력을 발전시키고 일에 있어 동등하게 활용될 수단을 찾아야 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조직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회를 조직하는 것은 누구의 노동도 착취 불가능하게 하며 모든 개인이 사회적 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회적 부는 오직 집단적인 collective 노동에 의해서만 생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부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한에서만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 사회주의는 거부된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물론 수 세기에 걸친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이미 그 임무를 제시했으며, 앞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극도로 무능력하다고 자학하지 않는 한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에 개인과 조직의 완전한 자유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사회 조직, 혹은 어떠한 통제권력일지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회 조직을 피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점을 긴급히 추가하고자 한다. 우리는 조직, 경제, 정치의 유일한 기반이 자유 일한 창조적 원리로서 인식하고 있는 자유라는 이

그룹, 코뮌, 협회 그리고 심지어 개인까지도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함으로써, 그리고 국가의 실체인 폭력 일체의 역사적 근거를 단호하게 파괴함으로써 끝장을 내야만 하는 것은 바로 강제력을 기반으로 한 이 낡은 조직 체계다. 국가의 몰락에는 사법권의 부정과 국가 숭배자의 갖가지 기만을 파괴하는 과정이 수반될 것인데, 사법권과 그 숭배자들은 언제나 국가가 대표하고 보증하며 인정하는 모든 폭력을, 현실에서 뿐 아니라 관념에서도 불만은 있을지라도 신성시해왔을 따름이다.

국가가 사라질 때에 이르러서만 인류가 자유를 쟁취하고, 사회, 그룹, 지역 조직의 이익과 모든 개인들의 참된 이해 관계가 실질적으로 충족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폐지된 국가의 뒤를 이을 자유 조직

국가와 교회의 폐지는 사회의 진정한 해방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도 불가결한 조건임에 틀림없다. 사회는 그 이후에야 재조직화에 착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하지만 재조직화는 위로부터 진행되거나, 소수의 현자 및 똑똑한 사람이 구상한 이상적 계획에 따라 실행되어서는 안 되며, 일부 독재 권력 혹은 실령 보통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회의일지라도 이들이 제출한 법령을 통해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앞서 언급했던 그런 체계는 불가피하게 정부 관료 귀족, 즉 인민 대중과는 아무런 공통의 이해 관계를 갖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들게 되는데, 확인하건대 이 계급은 공공 복리나 국가를 구한다는 허울 아래 다시 대중을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먹게 될 것이다.

자유는 평등과 함께 가야 한다

나는 경제적, 사회적 평등에 대해 확신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등 없이는 자유, 정의, 인간의 존엄성, 도덕성, 그리고 개인의 안녕은 물론 국가의 번영도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인류애의 제 1 의 조건인 자유의 옹호자이기 때문에, 평등이 결코 국가의 초월적 감독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과 집단적인 자생적 조직에 의해 코뮌으

혁명기간에합당한전술

사회혁명기간에, 사회혁명은모든측면에서정치혁명과정반대되는데, 개인의행동은거의중요하지않은반면, 대중의자발적행동이결정적중요성을가진다. 개인이할수있는일은대중의본능에상응하는생각을명확히하고, 선전하며, 실행하는것그리고이에더하여대중의자연스런힘인혁명적조직에끊임없는노력을보태는것이다. 그외에는아무것도할수없으며, 나머지는인민스스로가할수있으며, 해야만한다. 이와는다른어떤방법이라도정치적독재로귀결되고, 국가가재출현하여국가의압제, 불평등과특권이부활될것이다. 즉, 그것은대중의정치적, 사회적, 경제적노예제도의재확립을위한우회적이지만논리적인방법으로이어질것이다.

모든성실한사회주의자들과마찬가지로바아랭 (Varlin) 과그의친구들은모두인민들에게서태어나고자란모든노동자들처럼, 고립된개인들의주도권과탁월한개인들에의한지배그리고무엇보다도이러한지배가철두철미하게관철되어똑같은선입견과불신을자기사람들에게까지전파시키는것에반대하는너무나도정당한성향을수준높게공유하고있었다.

법령뿐인혁명은실패하고야만다

사회혁명이독재혹은헌법의회를통해발효되거나조직될수있다는, 내가보기엔정말사악한권위주의적공산주의사상과는대조적으로, 우리의친구파리의사회혁명-사회주의자들은인민들의그룹이나결사의자생적이며지속적인대중행동을통해서만혁명이가능하며, 완전하게발전할수있다는견해를가지고있었다.

우리의파리친구들은그야말로정당했다. 사실그런의도가없기때문에, 설혹제아무리천재적재능을가지고있다하더라도, 혹은탁월한수백명의집단적독재를입에올릴수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인민의집단의지를구성하는무한정다양하며이질적인실질적이해관계, 열정, 의지, 욕구를포용할수있는지식인조합은존재하지않는다. 이모든것을만족시킬수있는사회조직을고안할수있는지성은없다.

그러한조직은얼마간국가의사주를받은폭력으로늘사회를불행으로물고가는프로크루스테스의침대가될것이다. 그러나사회혁명이대중,

름으로, 국가공산주의혹은국가사회주의를조금이라도닭은모든것에대해서도맞아야만한다.

상속법의철폐

국가가할수있고, 또해야만하는유일한일은우선상속법을조금씩수정해가능한한빨리완전히폐지에이르게하는것이다. 그법은순전히국가의창조물이며권위주의적이고신성한국가가존재하는조건중의하나인바, 국가에서의자유에의해폐지될수있으며폐지되어야한다. 다시말해, 국가는정의의원리에따라자유롭게조직된사회로해체되어야한다는것이다. 상속권이철폐되어야한다는우리의주장은, 그것이존재하는한 개인의자연적불평등이아니라계급의인위적인인간불평등인세습되는경제적불평등이존재할것이고, 후자는심성을계발하고형성하는데있어항상적으로세습적불평등을낳아, 계속해서모든정치적, 사회적불평등의원천이자정수가되고있기때문이다. 정의의임무는만인을위한평등을확립하는것인데, 평등은만인이소망하는삶에필요불가결한것이고경제적, 정치적조직사회에의존하는것인즉, 모든사람은그스스로의본성에인도되어자기노력의결과물이될것이기때문이다. 죽은사람의재산은남녀어린이의수련과교육을위한사회기금으로돌려져서, 그들이태어날때부터성년이될때까지의양육비까지뒷받침해야한다고우리는여긴다. 우리의기본적인사회구상은슬라브인과러시아인처럼동시대인의일반적이며전통적인본능에근거하여모든사람의재산을존속시키는것이되, 그재산은직접경작하는사람에의해서만소유되어야한다는점을덧붙이고자한다.

우리는여러분에게이원리는정당하며, 모든심각한사회개혁의필수적이고불가피한조건이며, 비록프랑스와같이경작은자신들이하지만현재행하고있는정치, 경제체계의피할수없는결과로서초래되는토지의처분으로인해, 농민대다수가결국아무것도소유하지못하게되고마는그런토지를소유하고있는나라들에서는그원리의실현이어려울지라도, 결과적으로서유럽도이원리를인식하고수용하는데실패하지않을것이라는점을확신시키고자한다. 그러나토지문제에관한더이상의제안은삼가기로하겠다. 다만, 지금다음과같은선언을제안하는것으로만족하고자한다.

사회주의선언

“지금전세계가자랑스레여기는모든재화를생산하고서도그대가로 단지조그만빵조각밖에받지못해내일의생계를장담하기어려운인구대 다수가, 사실상법에의해서가아니라휴식도여가도없는노동, 그리고가 난때문에기본적욕구를박탈당하고있는한그리고교육의혜택을받지못 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볼품없는노예상태로운명지어져있는한자유, 정의, 평화의엄중한실현은불가능할것이라고확신한다.”

“수세기동안끔찍하게학대를받아온사람들에게빵의문제는정신적 인해방의문제이고, 자유와인간성의문제라고확신한다.”

“사회주의없는자유는특권과불의의不義이며, 자유없는사회주의는노 예제이자야만일뿐이라고확신한다.”

“평화와자유를위한연맹은자본과사유재산소유자의속박으로부터 인민의노동을해방시킬것을목표로하는사회경제의급진적재건, 법률적 정의나신학적, 형이상학적정도가아닌인간정의에다름아닌엄격한정의 그리고실증과학과광대한자유에근거하는재건의급진적필요성을소리 높여선포한다.”

정치권력의자리에생산담당자의조직을

원리상으로나실제상으로도정치권력이라부르는것을완전히철폐할 필요가있는데, 이는그것이존재하는한지배자와피지배자, 주인과노예, 착취자와피착취자가존재할것이기때문이다. 정치권력이일단철폐된다 면생산력조직과경제체제조직으로대체되어야한다.

근대국가의비약적인발전에도불구하고 — 그발전의궁극적인단계 에서국가를논리적으로부조리하게만드는발전 — 국가와국가원리의시 대가얼마남지않았음이명백해지고있다. 이미우리는역경을딛고선대중 의경제적연대의해형성된자유사회조직이정부의간섭으로부터벗어 나완전한해방을향해다가가고있으며, 낡은국가의모든국경선과민족차 별이철폐되고있고, 사회의의질성에도불구하고한가지공통관심사를가 지는데, 그토대로서생산적노동, 인간화된노동을취하고있음을볼수있 다.

인민의이상

물론인민들에게는이러한이상이무엇보다도우선집단노동을통하여 만인에게균등하고의무적인방식으로결핍을충족시키고, 소유를소멸시 키며, 모든물질적욕구를완전히만족시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나서 지배의중식이자, 인민들이자신들의욕구와부합하는삶을국가에서보이 는하향식이아니라아래로부터자유롭게조직화하는것을표현하는것으 로서, 인민들스스로일체의정부및의회와는무관한조직 — 농촌과공장 노동자들, 나아가코뮌, 지역그리고전국적수준의조합, 마침내미래에 는국가가모두무너져내린폐허위에찬란하게빛나는필보편적인류보편 적인형제애의조합을결성하는것을의미한다.

자유사회의강령

공화정의국가형태인마치니 Mazzinian 체제바깥에는코뮌의공화 정, 연합의공화정, 사회주의적이며참다운인민의공화정인아나키즘체 제만이존재할뿐이다. 그것은국가의폐지를목표로하는사회혁명의정치 이며, 경제, 인민의총체적자유조직, 즉연맹을통해아래로부터조직되는 조직이다.

...이조직은단순히인민에의한행정으로변화할것이기때문에정치권 력이존재할가능성은없다.

우리의강령은몇마디말로 요약할수있다.

평화, 해방, 그리고억압받는사람들의행복.

모든압제자와약탈자에대한전쟁.

노동자에게로의전면반환 — 모든자본, 공장, 노동도구, 노동과원 자재는조합에게로, 토지는자기손으로경작하는사람들에게로.

자유, 정의그리고지구상모든인간에대한우애.

만인을위한평등.

그어떠한차별도없이모든사람에게계발, 교육, 양육의수단과노동하 며평등하게살아갈가능성.

농업과공업, 문학과과학등에있는노동자협회의자유로운연합을통 해아래로부터사회를조직하는것 — 처음에는코뮌으로, 그리고코뮌연 방에서지역으로, 지역은전국으로, 각나라들은국제적우애협회로.